

바이든, 첫 정상 통화서 한국엔 “핵심축”-일본엔 “초석”

조바이든, 한미동맹 강화·북핵 문제 등 협력 강조 文 ‘코로나19 리더십’ ... 스가 ‘안정적 리더십’ 칭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정상과 첫 전화 회담을 했다. 양국에 모두 동맹 강화를 강조했는데 한국엔 ‘핵심축’, 일본엔 ‘초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이날 인수위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 한국엔 ‘linchpin’ vs 일본엔 ‘cornerstone’

바이든 당선인은 “인도-태평양 지

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여기서 한미동맹에 대해 핵심축을 뜻하는 ‘린치핀’(linchpin)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서 기후변화에서 이르기까지 공통 도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것도 강조했다.

일본에 대한선 ‘초석’(cornerstone)이란 단어를 썼다.

인수위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미일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초석이라고 표현했다.

인수위는 바이든 당선인과 스가 총

리가 “기후변화와 전 세계 민주주의 강화,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초석으로서의 미일동맹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文 ‘코로나19 리더십’ ... 스가 ‘안정적 리더십’ 칭찬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 정상을 각각 치켜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선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리더십을 높이 샀다.

인수위는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코로나19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며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세계 보건 안보 구축, 세계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두 달여 전 총리직에 오른 스가 총리에 대한선 취임을 축하하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칭찬했다.

◆ 첫 전화통화 30분...시간은 한국과 먼저 정해

바이든 후보의 한일 두 정상 간 전화 통화는 30분 차이로 이뤄졌다.

한국 시간으로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스가 총리와의 30분 앞선 오전 8시30분에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14분, 스가 총리와의 10분 간 대화했다.

일본과 먼저 통화한 것을 두고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통화 시간은 한국과 먼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의 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화통화 시간은 우리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고, 시간을 먼저 확정된 것도 한국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에 물어 정책 결정 무책임”

“文정권 유일한 성과, 반민주적 권력중독”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민 단국대 교수는 12일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고 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무책임 국정 의 표본”이었다고 비판했고 서 교수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한 지 3년 반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 무엇이나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겠다”며 “줄기차게 내세웠던 소위 검찰개혁의 유일한 성과는 이 정권이 과거 독재정권의 DNA와 거의 같은 중증의 반민주적 권력 중독자라는 진단 결과를 받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3년 반 동안 해낸 것은 조국, 윤미향 사태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말할시키고 진영정치와 연성독재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것밖에 없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부터가 코미디였다”며 “원전 가동중단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 결정한 것은 정책 결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 국정의 표본이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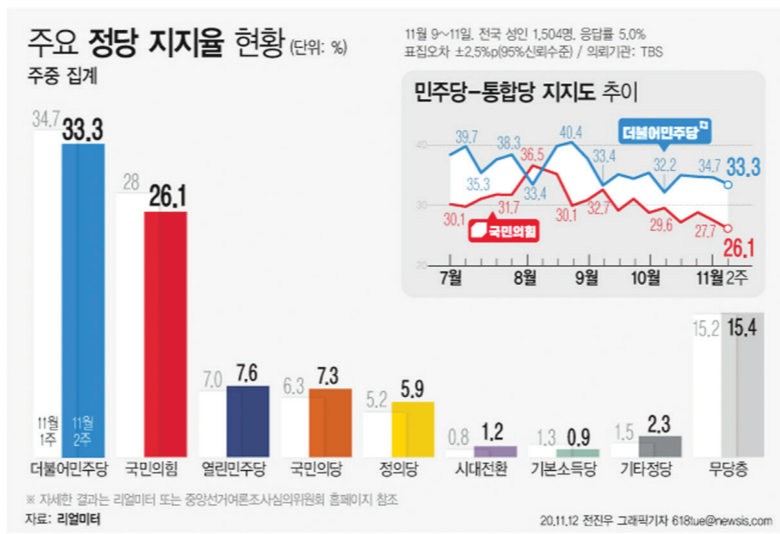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22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면서도 신규 원전 중단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교수도 국민 수준을 거론했다. 서 교수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이므로 정치 수준이라는 게 사실 한 나라의 국민의 수준”이라며 “지금 현재 정치가 수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정치권만의 책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민주당 33.3%, 국민의힘 26.1%...서울·PK 지지율 재역전

서울, 민주 33.3% 국민의힘 28.9%...PK도 재역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11월 2주차 주중 잠정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전주 대비 1.4%포인트 내린 33.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도 전주 대비 1.9%포인트 내린 26.1%로 양당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양당 격차는 7.2%포인트로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다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이 진행된 부·울·경의 경우 민주당이 반등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해 오차범위 내이지만 재역전 양상이 나

타났다. 서울에서 민주당은 전주 대비 2.7%포인트 오른 33.3%, 국민의힘은 3.3%포인트 하락한 28.9%였고, PK에서도 민주당 29.7%, 국민의힘 27.1%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60대(4.5%포인트 ↑), 보수층(3.8%포인트 ↑)에서는 상승했으나 호남(8.6%포인트 ↓)·TK(3.1%포인트 ↓)·70대 이상(5.1%포인트 ↓)·20대(4.7%포인트 ↓)·50대(3.5%포인트 ↓), 진보층(3.4%포인트 ↓), 무직(5.7%포인트 ↓)에서는 내려갔다.

국민의힘은 PK에서 7.1%포인트 급락했고, 서울에서도 3.3%포인트 하락했다. 30대(8.3%포인트 ↓)·60대(6.5%포인트 ↓), 보수층(4.4%포인트 ↓), 사무직(7.1%포인트 ↓)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밖에 열린민주당 7.6%, 국민의당 7.3%, 정의당 5.9%, 시대전환 1.2%, 기본소득당 0.9% 순이었다. 기타정당은 2.3%, 무당층은 15.4%였다.

뉴시스

추미애 “예산 집행 점검 건 내 책무”

윤석열 검찰총장이 ‘쌈짓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를 발견해 진상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뢰해 사용한다는 것이 합의를 특활비를 각 기관에 주고 있는 것인데, 추 장관의 발언으로 특활비 문제가 증폭됐다”고 지적하자, 이처럼 답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은 소속 기관에 대해 특활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 것은 자체 감사 대상이고 장관의 권한이다”라고 했다.

또 “지휘·감독권자로서 소속기관 대개의 예산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장관의 책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특활비의 절반 정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